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돌아온 스포츠 열기가 고양시에서 다시 이어진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2022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저마다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를 사용하지만 태권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태권도와 품새대회를 들여다본다.

글. 박종범(국기원 태권도연구소장)

## 태권도, 세계의 새로운 희망이 되다



### 한류의 원조, 태권도

요즘 한국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K-Culture의 저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의 영화나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BTS, 블랙핑크 등의 한국 뮤지션들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로 불리는 '한류(韓流, Korean wave)'의 원조는 무엇일까?

광복 이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195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에 태권도 보급을 시작했고, 이제는 211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라고 할 만하다. 많은 외국인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을 알았다'고 하며, '그래서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태권도의 가치는 국익 차원에서도 매우 높다. 태권도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과 견해가 있지만,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태권도인들과 정부가 합심하여 태권도를 정립하고 보급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무예이며, 태권도가 한국의 문화영토 확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지금까지 세계적인 무예 스포츠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국회에서도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에 걸맞게 2018년 3월 30일 태권도를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 공식 제정하였다.



### 몸과 마음 수련하는 태권도 품새대회

태권도는 무예로 시작되었지만, 누구나 부담 없이 태권도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면서 다양한 진화를 거듭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한 생활체육 태권도가 만들어지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태권도가 개발·보급되었다. 또한, 겨루기 대회뿐만 아니라 품새대회도 도입되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태권도 수련자들이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적인 태권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태권도 품새는 공격과 방어 기술의 반복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구성된 수련체계로써, 일정한 품새 선(線)에서 가상의 상대와 겨루는 수련법이다. 품새는 유급자 품새인 태극 품새 8개와 유단자 품새인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천권, 한수, 일여, 그리고 팔괘 품새 8개 등 모두 25개가 공인 품새이다. 또한 품새 경기에서는 공인 품새와 더불어 경기용 새 품새, 자유 품새 등이 사용된다. 태권도의 이러한 발전적 진화는 태권도가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가치를 선물하고,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품새대회는 2006년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효시가 되었으며, 2018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열린 제18회 하계 아시안경기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종목에 채택되었다. 이후 품새대회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정기적인 국제대회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품새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서, 태권도가 겨루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성과 가치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